

곡성심청어린이대축제, 아이와 함께 가야 할 대표 축제 우뚝



전국 어린이들의 마음을 3일만에 사로잡은 곡성심청어린이대축제가 10월31일 폐막했다. 곡성군 심진강기차마을에서는 10

심진강기차마을서 3일간 '가을 어린이날' 풍경 "코로나 19 상황 속 아이들에 특별한 하루 선물"

월 29일부터 31일까지 '아이에게 선물하는 특별한 하루'라는 주제로 곡성심청어린이대축제가 열렸다. 전국에서 축제장을 찾은 부모와 아이들의 모습은 마치 가을의 어린이날 같은 풍경이었다.

어린이대축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축제장 곳곳에서는 오직 어린이들만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펼쳐졌다. 특히 매일 1회 이상 펼쳐지는 뽀로로, 슈퍼윙스, 캐리와 친구들 등 인기

캐릭터들의 무대 공연에 어린이들은 환호했다. 평소 화면으로만 접하던 캐릭터들과 함께 노래 부르고 사진도 찍으면서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다.

또한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좋아하는 디즈니 인기 만화 OST 무대도 눈길을 끌었다. '겨울왕국', '인어공주', '알라딘', '미녀와 야수' 등으로 유명한 OST를 전문 뮤지컬 배우들이 직접 선보였다. 부모와 아이들은

피크닉 콘셉트로 꾸며진 관람석에서 편하고 자유로운 모습으로 무대를 즐겼다.

어린이들이 직접 무대의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들도 별도로 구성됐다. 곡성 청소년 오케스트라 연주, 어린이 태권도 시범, Young 스트릿댄스 배틀, 전남 도립 어린이 국악공주, '알라딘' '미녀와 야수' 등으로 유명한 OST를 전문 뮤지컬 배우들이 직접 선보였다. 부모와 아이들은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제한적인 여건 속에서 펼쳐진 축제였는데도 아이들에 특별한 하루를 선물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내년 5월 곡성세계장미축제와 10월 곡성심청어린이대축제는 더욱 특별한 프로그램들로 내년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곡성=양해영기자

"콩이 된장이 됐어요" 나주시 미래세대 미각 교육 호응

어린이집·유치원 15개소 원아 대상 ... 향토음식 친밀감 형성 도움

나주시는 전통식문화 계승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15개소 원아들을 대상으로 추진한 '향토음식 미각교육'을 마무리했다고 10월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통식문화에 대한 미래세대의 친밀감 형성과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목표로 마련됐다. 지난 5월부터 이달 27일까지 매주 월·화요일 나주향토음식체험문화관에서 상반기 '나주 배로 만든 전통음식 및 김치', 하반기 '향토음식을 활용

한 전통장류'를 주제로 총 20회차 진행됐다. 특히 단순 지식 전달 방식이 아닌 교육생 눈높이에 맞춰 오감을 활용한 배숙, 콩으로 매주 만들기 등 체험에 중점을 두며 아동들의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냈다. 어린이집 교사 김 모 씨는 "송편 만들기 같은 단순 체험 활동은 원에서 했었지만 배숙이나 매주 만들기는 처음 해보는 터라 색다른 체험 기회가 됐다"며 "원아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

물해준 강사님들과 향토음식체험관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지역 아동들이 향토음식과 한걸음 더 친숙해지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통식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패스트푸드, 방부제 첨가 식품 등에 익숙해진 식습관을 개선하는 다양한 미각교육을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구례=박종영기자

화순 국화동산, 사전예약 관람 흥행몰이 이어져

화순농업기술센터, 52만주 1억2천만 송이 국화꽃 조성



'화순 국화동산 사전예약 관람'의 흥행 조짐이 예사롭지 않다. 제법 쌀쌀하게 내리는 가을비도 남산공원을 방문하는 사전예약자와 군민들의 발

걸음을 돌릴 수 없었다. 관람 첫 주말인 30일에 총 2842명의 방문객이, 31일 오전 11시 30분 기준 총 759명의 방문객이 화순 국화동

산을 찾아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남산공원 동산의 곡선을 따라 펼쳐진 국화꽃의 절경에 방문객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폈다.

남산공원에는 현재 화순군 농업기술센터가 조성 중인 52만주, 1억2천만 송이에 달하는 국화꽃 동산이 조성돼 있다.

공원을 가득 채운 가을 국화의 향연에 방문객들은 저마다 탄성을 지르며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다독였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가족, 연인과 사진을 찍는 모습에서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엿볼 수 있었다.

화순군 관계자는 "남산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이 국화꽃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추억을 쌓는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며 "안전하고 차분한 관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순=박순철기자

담양군, 정원관광 컨퍼런스서 '올해의 정원관광도시' 수상

인문학교육·전통정원 특구 등 성과 인정받아



경 올해의 정원관광도시 수상

담양군은 10월28일 담양리조트에서 열린 '2021 IGTN 정원관광 컨퍼런스'에서 올해의 정원관광도시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군은 인문학교육·전통정원 특구 지정과 한국형 정원 저변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 정원 신산업 육성과 정원 산업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인 국립한

국정원문화원을 유치하는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날 열린 정원관광 컨퍼런스는 한국정원산업 발전과 담양 한국정원문화원 유치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매년 정원관광과 관련된 콘텐츠를 부문별로 나눠 평가해 시상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담양군의 정원관광 현재와 미래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학계 전문가, 공무원 등 다양한 정원분야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코로나 19 이후 정원관광 분야의 국내·외 선진 사례와 전망 제시 등 10개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담양에 유치될 한국정원문화원을 중심으로 정원문화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고 정원 네트워크 형성과 정원관광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구례 배 동남아 수출 상차식 가져

구례 배 동남아 수출 상차식 가져



구례 배가 동남아 수출 길에 올랐다.

구례군은 10월29일 구례 배 동남아 수출 상차식을 가졌다. 상차식은 김순호 구례군수, 유시문 군의장, 구례농협 임·직원과 생산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상차를 통해 올해 목표 100톤 중 32톤이 대만 수출 길에 올랐다. 구

례군은 농산물 국내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을 위해 수출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다. 구례군에서는 지리산과 심진강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에 밤낮의 기온차가 커 당도가 높고 단단한 고품질의 배가 생산되고 있다. 전문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재배기술력이 향상되고 있으며,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신 품종을 개발하는 정책도 이번 수출에 한몫했다고 밝혔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신 품종 개발과 재배기술 향상 등으로 국내외에 구례 배의 명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
Road to Nature, Gurye

지리산과 심진강의 풍요로움을 담은 구례군 로컬마켓

구례군 로컬마켓

www.guryelocalmarket.com
구매 문의 ☎ 061)780-8294